

은희삼 대표, 대통령 표창장 수상

(행복이 가득한 드림영농조합)

24회 농업인의날 기념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은희삼 행복이가득한드림영농조합 법인 대표이사는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농촌 활성화와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했다.

2012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6차사업을 통하여 소득증대 도모함을 목적으로 행복이가득한드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대표로 참여하여 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고품질쌀 생산과 6차사업과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 들녘경영체육



은희삼 수상자 부부

성사업인 시설장비에 선정되어 공동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

이 후 낮은 소득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논에 조생벼와 타작물인 콩 2기작으로 메밀등을 육묘하여 고소득 창출에 선도 농업인으로 앞장서왔다.

/은하수 기자 ehs1203@



새단장 한 섬진강 자전거길

/곡성 군청

섬진강 자전거길, 노후구간 '새단장'

곡성군 오곡면~두가 세월교 구간 국비 2억 투입, 포장·도색 등 실시

곡성군이 국비 2억원을 들여 섬진강 자전거길 종주 노선과 순환 노선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비를 통해 곡성군은 오곡면 SK주유소에서 두가 세월교까지 6.2km 구간에 아스콘 포장, 안전난간 설치, 차선 및 방

호벽 도색을 실시했다. 그동안 노후됐던 섬진강 자전거 도로가 정비됨으로써 이용자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미처 못했던 방호벽을 무지개색으로 새롭게 단장한 두가 자전거도로 구간은 많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광주시, 관광정책 '新 플랫폼' 설립 추진

광주시가 민관 관광정책 플랫폼이 될 가칭 광주관광재단을 설립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 출연 기관으로 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만간 마치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출자·출연기관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관광재단은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도 최근 광주시와 협의에서 업무 중복성 해소와 함께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지침 이행, 장기적 관점의 경제성 검토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10 | 해질 / 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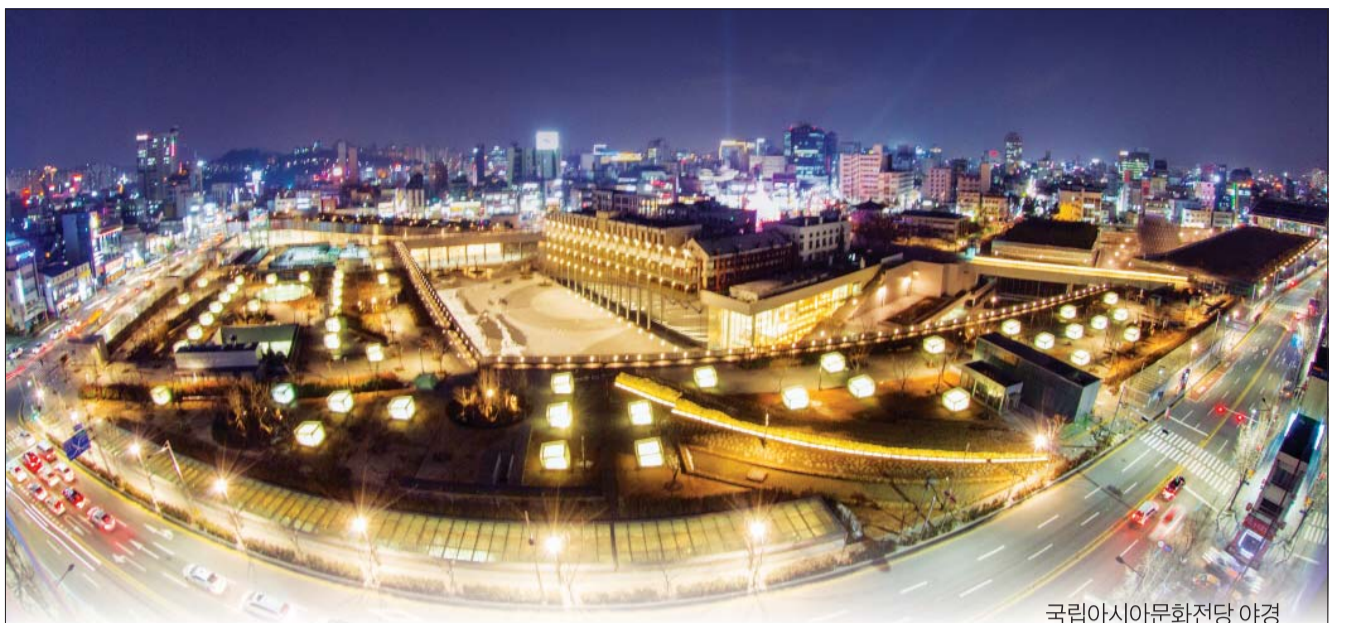
11월 14일 (木)
음력 : 10월 18일

수도권 날씨 **-3 ~ 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7/4, 동두천 -5/4, 가평 -5/5, 파주 -6/4, 서울 -3/5, 양평 -4/6, 인천 -1/5, 수원 -2/5, 용인 -2/5, 평택 -3/6, 백령도 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광주시 2023년 문화중심도시 사업 콘텐츠 부족

“특별법 개정해 국비지원 늘려야”

16년간 집행된 국비 48.8% 국비 반영 사업 절반도 안돼 “지원 통해 신규사업 확대”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서구2)은 13일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간이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20

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2912억원(국비 2조7679억원, 시비 7896억원, 민자 1조7337억원)을 투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까지 16년 간 집행된 예산은 국비 1조3510억원(48.8%), 시비 1284억원(16.3%)에 그쳤으며, 민자유치는 794억원(4.6%)에 그치고 있다.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23개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11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도 특별법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2023년이면 국비 지원도 중단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예산 투입이 저조하다 보니 문화전당을 건립하고도 콘텐츠가 부족해 ‘빈 강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개정해 국비 지원을 늘리고 신규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인천공항공, 항공·물류분야 인재 육성 앞장

9개 대학과 산학협력 체결 학교당 1억씩, 총 9억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국내 항공, 물류분야를 선도하는 9개 대학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각 학교당 1억 원 씩, 총 9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체결식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공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9개 대학의 총장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열렸다. 공사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9개 대학은 경성대학교, 목포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원대학교, 초당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의 사



국내 9개 대학간 산학협력협약 체결 사진

회적 가치 확대 및 항공, 물류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항공, 물류 선도 대학에 발전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사는 발전기금 규모를 9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 학교를 지난해 3개 대학에서 9개 대학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항공물류분야 청

년 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지원하는 발전기금은 비행 조종훈련생의 실습을 위한 교육용 항공기와 비행 시뮬레이터 구입 등 각 대학에 필요한 학습기자재 구입과 강의실 등 학습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

(식중독)

인천시 15건 중 14건 집단 생활시설서 발생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급성설사질환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여 식

중독 원인 병원체의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생활시설에서의 주변 환경까지 확대 검사를 실시하는 등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9년 현재까지 연구원으로 의뢰된 식중독 원인 병원체를 검사한 결과, 35건 중 15건(42.9%)이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으며, 15건 중 14건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기관의 환자감시 현황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인위생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천=최영주기자 choijj@